

2023. 12. 26.(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2월 26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2133-4331
도시철도총괄팀장	임국현	2133-4333
담당자	정현화	2133-4343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서울시, 지하철 증차로 혼잡도 낮추고 안전 높이고… 국비 256억 확보

- '27년까지 총 1,024억원 투입해 혼잡도 높은 4·7·9호선 8편성 증차 추진
- 금번 국비 확보, 혼잡도 완화 위해 '운영 중인 노선'에 국비 확보 이룬 첫 사례
- 지하철 증차 시 혼잡도 150% 수준으로 감소…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기대
- 시 “지속적인 혼잡도 관리를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환경 조성”

서울시가 지하철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동차를 증차, 열차 내 혼잡도 완화를 추진한다. 시는 '27년까지 4·7·9호선에 1,024억원을 투입해 전동차 8편성을 추가 증차키로 했다.

○ 전동차가 추가 투입되는 노선은 4호선(3편성), 7호선(1편성), 9호선(4편성)으로, 현재 노선별 혼잡도와 추가 투입 시 예상되는 혼잡도 개선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 '22년 혼잡도 : 4호선(185.5%), 7호선(160.6%), 9호선(194.8%)

서울시는 '24~'27년까지 총 4년간 사업비 1,024억원 중 25%인 256억원('24년 64억원)의 국비를 요청했으며, 국회와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시가 요청한 국비 전액을 확보했다. 지하철 건

설 또는 노후 전동차 교체가 아닌 ‘운영 중인 노선에 대한 전동차 증차’로는 최초로 이룬 성과다.

- 서울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서울 지하철이 연장되거나 연계되는 노선이 확장되면서 서울 지하철 혼잡도가 증가하고 시민 안전이 위협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국비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 특히, 오세훈 시장이 직접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23.6월)에 참석하여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23.11월에는 국회에 방문하여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왔다.

※ 국토교통부 예산협의회(’23.4월),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23.5월), 국비지원 건의사업 자료제출(’23.9월, 11월) 등

- 이와 같은 서울시의 노력을 기재부, 국토부 및 국회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비 확보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 상임위(국토교통위) 예비심사(’23.11.15.), 예결위 본회의 의결(’23.12.21.)

□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27년 전동차 8편성이 추가 투입되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는 150% 수준으로 크게 낮아져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2년 서울 지하철 혼잡도는 4호선 185.5%, 7호선 160.6%, 9호선 194.8%였으며,
- 전동차 증차가 완료되는 ’27년 혼잡도는 4호선 148%(20%↓), 7호선 147%(8.5%↓), 9호선 159%(18.4%↓)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9호선은 ’24.2월까지 신규 추가되는 전동차 8편성을 포함하여 예측한 혼잡도 수치임

※ 혼잡도 예측방식 : 해당 시간대 수송인원(혼잡도×정원×운행편성수)을 추가 투입된 열차를 포함한 총 운행편성수로 나누어 산출

-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는 금번 추진하는 전동차 증차사업 뿐만 아니라, 예비열차를 활용한 증회운행 등 다양한 혼잡도 완화 대책을 함께 추진해 왔었으며, '27년 전동차 추가 투입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한 혼잡도 관리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교통공사는 혼잡도 완화를 위해 예비열차를 활용하여 '23.4월 2·3·5호선 각 2편성을 증회운행한 데 이어 '23.10월 추가로 4호선 2편성, 7호선 1편성 증회운행을 실시하는 등 혼잡도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증회투입한 노선의 혼잡도 변화>

연도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7호선
2022년	172.3%	154.8%	185.5%	140.9%	160.6%
'23.11월	144.0%	140.1%	166.2%	127.2%	152.7%

-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출퇴근시간대 혼잡도를 낮추고자 의자가 없는 '전동차 객실의자 개량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혼잡도 완화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 4호선 열차 10개칸 중 1칸의 7인석 의자만 제거 / 장애인·노약자용 3인석은 유지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혼잡도 완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왔으며, 특히 혼잡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하철 증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혼잡도가 높은 4·7·9호선의 혼잡도를 150% 수준으로 낮추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2017	104.5%	170.3%	140.2%	159.7%	109.9%	111.3%	155.9%	129.6%	-
2019	105.6%	172.7%	143.8%	161.7%	107.3%	106.1%	145.6%	131.2%	-
2020	80.9%	127.7%	110.7%	131.4%	100.0%	86.7%	134.1%	134.0%	170.8%
2021	84.0%	149.4%	140.6%	150.8%	132.2%	95.9%	127.0%	134.1%	185.2%
2022	107.8%	172.3%	154.8%	185.5%	140.9%	113.8%	160.6%	136.8%	194.8%
'23.11월	109.1%	144.0%	140.1%	166.2%	127.2%	111.3%	152.7%	139.1%	199.0%

※ 혼잡도 산정기준 : 첨두시간대 30분 최고 혼잡도

※ 열차혼잡도란 열차 내 여객탑승의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열차 탑승기준 인원 대비 실제 탑승인원 비율로 산정